

# “기간통신사업자 넘어 사업 다각화 ‘토털 ICT플랫폼’ 도약 원년 삼겠다”

통신 서비스 전문기업 드림라인(대표 유지창)이 올해를 ‘토털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23일 밝혔다.

1997년 출범한 드림라인은 고객사에 ICT 인프라(기업 전용회선·이동통신 공용화기지국)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다. 보유한 공개이불을 통해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기존사업 고도화와 신규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사에 최적화된 ICT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연결 사회를 잇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유지창 대표는 “전 세계 산업 종착지는 플랫폼 산업”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5만7000km 길이의 전국 광통신망과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노하우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커넥티드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전과 달리 데이터 생산과 전송, 저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드림라인은 자회사 드림마크원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대구센터에 이어 대전과 광주 등 센터 운영 지역을 확대해 계획이다.

한국데이터산업연합회가 지난해 조사한 ‘2020 데이터센터 산업 현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연평균 15.



**유지창 드림라인 대표**  
**5만7000km 전국 광통신망 보유**  
**연내 AI 기반 IP 콜센터 등 출시**  
**대전·광주 데이터센터 확장 박차**  
**中企 겨냥 클라우드 사업도 도전**

9% 성장해 700MW 이상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한국은 관련 부문에서 일본에 이어 아시아 2위 시장으로 부상한다. 회사는 시장 성장세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다년간 서비스 경험을 통해 국내 여타 기업보

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다. 그는 “국내에 53개의 네트워크 운영센터를 구축했다”며 “센터는 365일 실시간 관제와 24시간 유지보수 출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사업 진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2025년까지 행정·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회사는 이에 발맞춰 공공시장과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관련 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협력도 추진한다.

기존 사업영역에서는 신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도 출시한다. 기업 특화 부가서비스로 다양한 유·무선 메시징 서비스와 영상 관제 솔루션(VM S) 중계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IP 콜센터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유지창 대표는 “전사 역량을 투입해 ICT 인프라 사업자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변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엔택트와 디지털 혁신,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춘 사업모델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림라인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가 경쟁력을 높이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고객사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종권기자 lim9181@etnews.com



서울시 중구 세브일레본 본사에서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 이광수 군인공제회C&C 대표, 최경호 세브일레본 대표(왼쪽부터)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하렉스인포텍, ‘유비플랫폼’ 제공 軍 장병 ‘편의점 간편결제’ 편의↑

**세브일레본·군인공제회C&C와 협약**  
**배달·픽업 등 제휴 서비스 확대키로**

하렉스인포텍(대표 박경양)이 세브일레본(대표 최경호)·군인공제회C&C(대표 이광수) 등과 함께 현역 군 장병과 나라사랑포털 회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라사랑포털은 약 40만명의 현역 병사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3사는 군인공제회C&C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군 장병과 포털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렉스인포텍은 군 장병과 포털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과 관련 특화 서비스를 출시한다. 회사는 세브일레본에 사용자 중심 간편결제 플랫폼인 ‘유비플랫폼’을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게 쇼핑 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박경양 대표는 “세브일레본과 협업을 통해 현역 군 장병과 나라사랑포털 회원을 위

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군 전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제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장병을 대상으로 편의점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주문배달과 주문픽업 등 편의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휴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전문기업 하렉스인포텍은 지난 200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모바일 카드결제 서비스를 발표했다. 2013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결제혁신대회에서 ‘최고기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회사는 고객사에 모바일 카드와 모바일 전자지갑 결제서비스, 모바일 인증, 비밀번호와 생체정보를 결합한 복합 본인 인증서비스, 사용자 중심 모바일 결제, 출금, 송금서비스, 버튼 출금, 버튼 결제 등 전 과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스마트복합결제 시스템과 사용자 중심 결제 플랫폼용 원천 특허를 보유했다.

임종권기자 lim9181@etnews.com

## 투비소프트·베이직게이트, MZ세대 겨냥 ‘新 유통 플랫폼’ 만든다

**설명서 대신 제품 활용 동영상 제공**  
**홍보 효율 UP…B2B 넘어 B2C 확대**

투비소프트가 국내 인구 34%를 차지하면서 유통시장에서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를 겨냥해 제품 설명서 대신 짧게 편집된 실제 제품 사용영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품 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한다. 신선함과 재미를 선사하는 동영상 서비스로 MZ세대 소비심리를 극대화하는 등 기존 B2B 사업 중심에서 B2C 사업 영역으로 확장한다.

기업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플랫폼 기업 투비소프트(대표 이경찬·장선수)는 에이전시인 베이직게이트(대표 최수화)와 ‘신 유통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온라인 쇼핑물 관련 UI·UX 기술 플랫폼 구축 노하우 제공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관리와 암호화해 기반 마련 △모델 에이전시 관련 인적자원·콘텐츠 제공 △동영상 기반 쇼핑물 플랫폼 구축·사업 등 ‘신 유통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이경찬 투비소프트 대표(오른쪽)와 최수화 베이직게이트 대표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신 유통서비스 플랫폼’에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전달 큐레이터가 직접 사용하는 장면을 담은 3분 내외의 영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듯한 경험을 느끼는 동시에 짧지만 확실하게 제품 특징점을 확인, 구매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투비소프트는 기대했다.

투비소프트 관계자는 “차별성을 띤 제품 소개 방법으로 구매 욕구 향상과 제품 홍보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만족할 신개념 유통 서비스 플랫폼을 기획했다”며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 유통서비스 플랫폼’이 베이직게이트가 폭넓게 보유한 국내외 모델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또 “‘신 유통 서비스 플랫폼’은 제품설명서 대신 짧게 편집된 실제 제품 사용영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품 홍보방법을 선보이는 만큼, 플랫폼 도입 시 MZ세대에 보다 가시적인 마케팅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찬 대표는 “유통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구매자에게 와닿는 제품설명이 가능한지인 만큼 앞선 UI·UX 기술력이 반드시 요구된다”며 “베이직게이트와 상호협력해 개발하는 신 유통서비스 플랫폼이 B2C 영역의 시장 확대에 또 다른 성공사례가 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 인젠트, 신한DS와 ‘엑스퍼DB’ 영업·마케팅 협력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플랫폼〉

인젠트(대표 장인수)는 금융 ICT기업 신한DS(대표 이성웅)와 클라우드와 오픈소스로 점차 확대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 주요 협약내용은 ‘인젠트 엑스퍼DB(XperDB)’ 솔루션 공동 판매를 위한 영업·마케팅 등 조직 간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한금융이 대·내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품 판매를 위한 사업파트너 협약을 체결하는 게 골자다.

인젠트 엑스퍼DB는 기업이 데이터 플랫폼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오픈소스 도

입의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해소할 수 있다. 엑스퍼DB는 다양한 SQL 기능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DBMS 포스트그레 SQL 기반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다. 엑스퍼DB는 DBMS 운영에 필요한 통합 모니터링과 데이터 백업·복구, 데이터 암호화, 마이그레이션, 실시간 데이터 전송 등을 지원한다.

장인수 인젠트 대표는 “금융 ICT 선도기업인 신한DS와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기술과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플랫폼(엑스퍼DB)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 지능형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AISWG

머신러닝 기반 Threat Intelligence로 차세대 보안 웹 게이트웨이를 선보입니다.

시큐레터의 콘텐츠 기반 악성코드 분석 솔루션이 모니터랩의 AISWG와 결합되다!

**SECU**  
LETTER

시큐레터는 기존 시그니처 기반, 행위 기반 APT 솔루션의 대응 취약점을 보완하고, 리버싱을 통해 악성코드 공격을 탐지·진단·분석·차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랩 위협 인텔리전스 AICC**  
(Application Insight Cloud Center)

- > 악성 URL 실시간 업데이트
- > 악성파일 프로파일링
- > 자동화된 URL Categorization
- > VirusTotal과 연동, 협력관계 구축



**하나의 제품에서  
SWG와 SVA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SSL  
가시성  
확인

PE(실행)  
파일 진단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정책, 동적  
분석

비업무  
사이트  
차단